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7



▶ 88회 예고
아쇼까왕은 즉위 12년부터 석주나 바위에 담마칙령을 새긴다. 그 내용은 백성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이다. 자신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하는데, 백성들이 담마를 알고 실천하여 살생금지와 선행을 본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아쇼까왕, 석주에 담마 칙령 새기다

담마 칙령을 새길 거대한 석주를 옮기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와 백성들을 동원해야 했다. 즉위 10년에 빠딸리뿌뜨라에서 보드가야까지 석주를 운반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아쇼까왕은 거리와 석질을 고려한 최적의 사암 채석장을 찾아야겠다고 판단했다. 아쇼까왕이 어느새 왕사 대접을 받고 있는 우빠굽따에게 말했다.“장로시여, 지난번에 우리 군사와 백성들이 석주를 옮기느라고 너무 고생했소.”

“대왕님이시여, 군사와 백성들이 고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석주는 빠딸리뿌뜨라 근교 어디에서 캔 사암이었소?”

“아닙니다. 바라나시 부근 추나르 채석장에서 가져온 사암이었습니다.”

추나르(Chunar) 사암 채석장은 바라나시 근교 강가강 강변에 있었다. 우빠굽따가 품속에서 손거울을 꺼냈다. 지난번에 석주를 만들고 난 뒤 손바닥만 한 둥그런 사암조각을 다듬어서 만든 손거울이었다. 아쇼까왕이 물었다.

“무엇이오?”

“손거울입니다. 대왕님께 드리려고 석공에게 부탁해서 사암조각으로 만든 손거울입니다.”

“사암으로도 거울을 만들 수 있소?”

“질이 좋은 추나르 사암은 가능합니다.”

아쇼까왕은 추나르 사암조각을 가공해서 만들었다는 우빠굽따의 말에 놀랐다. 석재인데도 균열이나 흠이 없고 유리알같이 맑았다. 담홍색 빛깔은 구리거울처럼 광택이 났다.

“돌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신기하오.”

“추나르 사암 석질은 잠부띠바에서 최고입니다. 질은 단단하고 결은 섬세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추나르 사암으로 석주를 세운다면 대왕님의 위엄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추나르가 바라나시 근교에 있다니 강가강을 이용하면 나라 어디든 석주를 운반할 때 좋겠소. 앞으로는 사암을 빠딸리뿌뜨라로 가져오지 말고 최고의 석공들을 추나르로 보내어 그곳에서 만들도록 하시오.”

“대왕님이시여, 그렇게 조치하시면 군사와 백성들의 고생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아쇼까왕이 석주에 관심을 보이는 까닭은 바위에 칙령을 새겨 왔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는 인적이 뜸한 천연의 바위에 칙령을 새겨 왔는데, 그 내용이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칙령을 새긴 바위들이 대부분 가파른 언덕이나 산자락 같은 곳에 있었으므로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아쇼까왕이 바위 칙령 대안으로 석주를 생각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전의 어떤 왕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석주 조성이었다.

“바위에 칙령을 새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우리 마우리아국 영토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소. 붓다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미 조성한 불탑에 칙령을 새기는 것도 어색한 일이오. 그래서 석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오. 담마 칙령이 새겨질 석주는 가능한 한 붓다 성지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세우는 것이 좋겠소. 우리 백성들이 보아야 하니까”

“대왕님이시여, 대장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리소서,”

“그렇게 하겠소. 석주의 크기는 얼마만한 것이 좋겠소?”

“대왕님 걸음으로 20보에서 30보 정도면 장대하여 위엄이 생길 것입니다.”

“알았소. 장로께 또 하나 묻겠소.”

“보드가야 석주 위에는 코끼리를 조각하라고 명했소. 또 사르나트로 간 석주 위에 얹힐 조각은 네 마리 사자였소. 또 다른 곳의 석주에는 무엇을 조각해야 좋겠소?”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이 석주 위에 얹힐 조각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경외심을 느꼈다. 우빠굽따는 대답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붓다를 상징하는 상서로운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드가야에 세울 석주에 얹히는 동물은 이미 코끼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끼리는 붓다께서 태어나실 때 마야부인의 꿈속에서 나타난 동물입니다.”

“내가 호위대장에게 큰 코끼리상을 조각하라고 지시했소. 삔팔라나무 옆의 불탑도 두 배로 증축하라고 명했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붓다를 상징하는 또 다른 동물로는 황소가 있습니다. 싯다르타 태자는 아기 때부터 황소와 같이 튼튼하였고 늠름하였습니다. 〈숫따니빠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존재 중에서 견줄 바 없는 분,
가장 높은 분, 황소 같은 분,
모든 존재 중에서 으뜸입니다.

아시따 선인은 사꺄족의 황소를 팔에 안고
아기의 상호를 살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이 아기는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 가장 으뜸입니다.”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우빠굽따는 설법을 하듯 길게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또 말이 있습니다. 태자는 말을 타고 성을 나와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있습니다. 붓다의 설법은 사자의 포효와 같아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석주에 얹히는 사자상을 우리가 보드가야에 갔을 때 사르나트로 보냈는데 잘 된 일이오?”

“보드가야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신 붓다께서 사르나트로 가시어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했으므로 사자상이 그곳으로 간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 석주를 두 개 세울 수는 없소?”

“왜 그러십니까?”

“붓다께서 처음으로 설법한 사르나트에 사자상 석주는 이미 보내졌고, 붓다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다니 담마의 수레바퀴를 조각한 석주까지 세워진다면 어떠하겠소?”

“담마의 수레바퀴로 세상을 정복하시겠다는 대왕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쇼까왕은 왕궁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위대장을 불렀다. 그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즉시 담마의 수레바퀴, 즉 법륜을 조각하도록 지시했다.

“내년에나 늦어도 내후년에는 사르나트로 순례할 것이오. 그러니 법륜상 석주를 만들도록 추나르에 나가 있는 호위부대 조장에게 지시하시오.”

“예, 대왕님. 그런데 석주에는 어떤 문자를 새겨야 합니까?”

“나는 왕자 시절에 브라흐미, 카로시티 등 63개의 언어를 배웠소. 그 중에서도 나는 옛 마가다국과 사끼야족, 붓다께서 사용했던 브라흐미 문자를 잠부띠바 전역에 세울 석주에 새기겠소.”

“붓다께서 사용했던 문자로 새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나는 붓다께서 사용했던 문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담마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맹세했으니 당연한 일이오.”

이처럼 아쇼까왕은 잠부띠바 전역의 붓다 성지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통 요충지에 석주를 세우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석주만 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전에 해왔던 바위에 칙령을 새기는 작업도 아주 없애지는 않았다. 즉위 12년 이후에도 바위에 담마 칙령 뿐만 아니라 때로는 코끼리 등을 조각했다. 문자도 마우리아국 서북쪽 변경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게 그리스문자, 아람어문자, 카로스티문자 등을 사용했다.



아쇼까왕이 즉위 12년에 마우리아국 서북쪽 끝인 칸다하르 지역을 순행하면서 남긴 바위 담마 칙령인데 다음과 같이 음각을 했던 것이다.

〈우리의 군주이신 삐야다시 왕은 왕위에 오른 지 10년 후에 사람들에게 담마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셨다.〉

문자는 브라흐미 문자가 아닌 그리스 문자와 아람어문자를 사용했다. 같은 바위에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한 것은 이곳에 알렉산더 동방원정 이후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이 서북쪽 변경지방을 먼저 순행한 까닭은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의 사람들을 먼저 돌보려는 마음과 왕자시절에 탁실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던 기억이 선명해서였다. 칸다하르와 가까운 변경 사바즈 가르히(Shahbaz Garhi)라는 곳의 바위에는 카로시티문자로 칙령을 새겼다.

아쇼까왕은 칸다하르 순행을 서둘러 마치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왔다. 병석에 오랫동안 누워 있던 다르마 대비가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예를 갖추어 강가강에서 화장한 뒤 강물에 재를 뿌렸다. 불제자로서 담마의 실천자가 된 아쇼까왕이었지만 아지비까 교단에는 호의적이었다. 어머니 다르마를 추모하는 뜻에서 아지비까 교단에 가야(Gaya) 북쪽 깔라띠까 언덕의 동굴법당 두 개를 기증했다. 불교로 귀의했던 자애로운 다르마 대비가 항상 자신의 고향 짬빠성에서 만났던 아지비까 교단의 지도자 자나사나 구루를 얘기하곤 했었기에 그랬다.

한편, 아쇼까왕은 즉위 13년 이후부터 다시 석주를 세우고 담마 칙령을 새기기 시작했다. 보드가야에 불탑이 증축되었다는 보고를 받고서 코끼리상 석주를 세웠고, 사르나트에는 기존의 사자상 석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륜상 석주를 또 세우라고 지시했다. 아쇼까왕은 사르나트를 순례하는 동안 우빠굽따의 설법을 들었다. 우빠굽따는 사르나트에서 다음과 같은 붓다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분은 선인들의 숲(녹야원)에서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포효하듯이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이 바라나시의 이시빠따나의 사슴동산에서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첫 번째 담마의 바퀴를 굴리셨다.

나는 담마의 바퀴를 굴리네.
그 바퀴는 아무도 멈출 수 없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의 설법을 들은 뒤 사자상 석주에는 ‘붓다께서 다섯 명의 비구들에게 첫 번째 담마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는 내용을 브라흐미 문자로 새기게 했고, 당시 사르나트 승원에는 수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살고 있었으므로 법륜상 석주에 승가의 화합과 재가신도들의 포살법회 참석과 법대관인 마하마따들의 책임을 당부하는 칙령을 남겼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승가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비구든 비구니이든 승가를 분열하는 사람은 누구나 흰 옷을 입혀서 승원이 아닌 곳에 살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명령은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에 잘 전달되어야 한다.

재가신도들은 바로 이 칙령에 의해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우뽀사타(포살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마하마따들도 반드시 우뽀사타에 참석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칙령에 의해 그대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이 칙령을 그대들이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이 칙령의 명령대로 행하도록 그대들의 관할 지역을 순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다른 마하마따들도 요새 지역을 순방하여 이 칙령의 명령대로 행하도독 해야 한다.〉

물론 바위나 석주에 새기는 칙령이 위와 같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담마를 권장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케 하는 칙령들이 아쇼까왕의 명으로 돌에 새겨졌다.〈계속〉

